

‘광주상설공연’ 국악 넘어 클래식·발레까지 장르 확장

‘광주국악상설공연’ 명칭 변경
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 참여
매주 목~일요일 4일 공연
4월1일 창극단 ‘사시장춘’ 첫무대

‘광주공연마루서 즐기는 상설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한 ‘광주국악상설공연’은 주 5회 ‘국악’을 주제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무대를 포함해 모두 1000여회 공연이 열렸다.
‘광주국악상설 공연’이 올해부터는 장르를 확장해 ‘광주상설공연’으로 변모한다. 클래식, 합창, 발레 등 광주시립예술단이 참여하는 무대를 더해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했다. 공연 횟수도 주 5회에서 4회로 단축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으로 4월 시범 무대를 거친 후 5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름을 바꾼 ‘광주상설공연’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오후 5시)까지 열린다. ‘목요일상설공연’에서는 교향시립발레단,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상설공연’에서는 매주 금·일요일 국악관현악단과 창극단 2개 시립예술단체의 무대와 함께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예술단체가 공연을 진행한다.

또 한달에 1~2차례는 수준높은 공연 팀을 초청, 특색있는 기획공연과 특별공연도 개최한다.

시범 운영되는 4월에는 매주 수요일 발레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 창극단이 펼치는 무대와 민간예술단체가 선보이는 공연이 이루어진다.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리는 국악상설공연 무대.

(광주문화회관 제공)

1월 첫 공연에서는 시립창극단이 ‘사시장춘(四時長春)’을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판소리 ‘수궁가’를 각색한 ‘토끼 이야기’, 창작무용 ‘초무’, 단막창극 ‘어사상봉’ 등이 레퍼토리다.
시립발레단은 20일 ‘해설이 있는 발레-돈키호테’ 하이라이트 장면을 공연하며 27일에는 시립합창단이 ‘행복한 하모니’를 주제로 봄을 알리는 가곡과 우리민요를 독창과 합창으로 들려준다.
21일에는 국악창작그룹 ‘뮤르’의 기획공연 ‘달달콘서트’가 열린다. ‘별후의 명곡’을 통해 이름을 알린 ‘뮤르’는 이번 공연에서 국악 관악기에 재즈를 접목한

‘가리봉 블루스’, ‘정선아리랑’, ‘서울의 달’ 등을 선사한다.
그밖에 앙상블 편 ‘새로운 안녕’, 창작국악단 도드리 ‘아리랑 광주’, 예락의 ‘민요로 떠나는 팔도 유람기’, 빛고을무용가야금연주단의 ‘만화방창 쫓아왔네’, 루트머지의 ‘오래된 미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공연 일정과 예매는 티켓링크,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7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산강문화관이 개최한 생태교육.

“물 절약 함께 실천해요”

영산강문화관, 31일까지 ‘물문화 주간’ 행사

K-water 영산강보관리단(박종덕)·KWECO 영산강문화관(김창호)이 오는 31일까지 영산강문화관 일원에서 ‘물문화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물문화 주간’은 전국의 5개 강문화관을 운영하는 수원환경산업진흥(주)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水)문화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영산강문화관은 광주·전남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을 테마로 ▲물 부족 영상 홍보 ▲물 절약 그래픽 홍보 ▲영산강 사랑해 SNS 이벤트 ▲물문화 교육 ▲‘그리너:지구를 살리는 친구들’ 참여 환경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물 부족 홍보’는 광주시 공식 인터넷방송 헬로광주에 게시된 스팟영상을 상영하며 ‘물 절약 그래픽’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알리고 물 절약 방법을 홍보한다.
‘영산강 사랑해’ SNS 이벤트는 영산강문화관 강변무대에 설치된 ‘IYeong San

Gang’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차(Tea)’키피터콘을 증정한다.
물문화 교육도 진행된다. 21일 개최된 ‘이렇게 좋은 물’에 이어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시보GO 체험하GO’, ‘순이와 즐거자! 영산강 제3의 시간’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되며 4월에 추가 교육이 예정돼 있다.
광주시북성초소년문화의집(더나은센터)과 연계, 청소년 동아리 ‘그리너:지구를 살리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환경캠페인도 25일 진행된다. 물 절약을 주제로 한 바퀴퀴 퀴즈대회, 물 절약 포토존, 영산강 한 바퀴 캠페인 등이 영산강문화관 승촌원에서 개최된다. 또 청소년 물 절약 표어 공모전 결과물을 전시하며 ‘수생태 체험존’도 운영한다. 무료 참여. 문의 061-335-08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태호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 30일부터 7회 연속 강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카데미 강좌’는 다양한 주제로 미술을 알아가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지난해까지는 ‘현대미술 산책’, ‘왜 미술관에 가느냐고 묻거든’, ‘즐거움 미술관 활용법’ 등의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 강좌를 진행했다.
올해는 심화학습을 통해 주제를 집중 탐구하고 싶다는 여론을 반영해 한 명의 전문가가 특정 주제를 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올해의 길라잡이는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다. ‘이태호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 이야기 K-콘텐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가 모두 7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의 민중미술까지 한국미술의 모든 것을 탐구해 보는 시간으로 강의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오후 2시~4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첫 강연은 오는 30일 ‘선사시대 미술과 한국화의 원형’을 주제로 열린다. 이어 4월 27일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조선의 불화’, 5월 25일에는 ‘조선 초상화, 궁중장식화와 민화’ 강연이 펼쳐진다.
이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와 풍속화’(6월29일), ‘조선 후기 남종화와 근대 수묵화’(7월27일), ‘서양화풍 수용과 전통형식’(8월31일), ‘모더니즘



이태호 교수

과 전통사상(9월21일), ‘민중미술과 민족현실’(10월 25일) 등의 주제로 강의 이어진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근현대 회화까지 한국미술사 전반에 폭넓은 관심을 갖고 조선 후기 회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교수는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전남대 교수, 명지대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사람을 사랑한 시대의 예술’, ‘조선 후기 초상화, 이야기 한국미술사’ 등이 있다. 문의 062-613-713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다음 소희’ 잔잔한 흥행

광주독립영화관 장기 상영...N차·단체관람 이어져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 나한다고 더 무시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영화 ‘다음 소희’ 중 오유지(배두나)의 대사)
영화 ‘다음 소희’(사진)가 잔잔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9일 개봉 후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운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장기 상영중인 ‘다음 소희’에는 관객들의 N차 관람과 단체관람이 이어지는 중이다.
올해 개봉한 독립영화 중 최초로 누적관객수 10만 명을 돌파한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생생 자살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기업에 실생생으로 들어간 소희가 고군분투하다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도희야’(2014) 이후 정주리 감독과 배두나가 두번

째 호흡을 맞춘 작품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제75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된 이후, 캐나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 프랑스 아미앵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다.
3월 한달간 ‘다음 소희’를 단체 관람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광주정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 광주 지혜학교가 단체관람을 했고 4월에는 광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단체관람이 예정돼 있다.
또 독립영화를 지지하는 일반 관객의 N차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오는 4월 말까지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관람 문의 062-222-189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이조아 가족기자단’

광주문화재단, 4월 2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 아이조아 가족기자단’(가족기자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취재해 재단 블로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SNS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가족기자단 5팀을 오는 4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가족기자단은 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엄마랑 아이랑 문화기자단’을 개편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을 추가했다. 엄마, 아빠와 아이, 조부모와 아이,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 확대한 것.
선발된 가족기자단 5팀은 발달식과 기초 교육을 거친 후 활동하게 된다. 소정의 활동비와 위촉장 및 기자증이 발급된다.
아울러 재단 주최 행사 우선 초대와 비롯해 역량강화 워크숍, 사진 촬영, 기사작성 편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syan01@gjcf.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황봉년 광주문화재단 대표 이사는 “가족기자단은 우리지역의 문화행사와 예술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지나해부터 가족 구성원을 확대한 만큼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지역 문화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화작가와 함께 도깨비마을로 출발~

섬진강도깨비마을, 4월1일 썩 캐기·동시 짓기 등 행사

‘도깨비마을로 썩 캐러 가요.’
섬진강도깨비마을(총장 김성범)이 4월 첫 날 동화작가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4월 1일 오전 11시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봄 향기 가득한 봄날 동화 작가의 창작동요를 함께 듣고 마음 속에 동시 한 편 쟁겨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행사는 봄 느끼며 산책하고 도란도란 썩 캐기, 점심식사, 썩 튀김 만들기, 썩 튀김과 함께 차담 나누기 등으로 이어진다. 차담은 숲 이야기를 비롯해 동요 이야기, 작가가 들려주는 창작 동요, 동시 한 편 짓기 등으로 펼쳐진다.
최소 모집은 4명이며 최대 10명으로 운영한다. 예약자 3명일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참가비는 5만원(입장료, 식사비, 다과비, 창작동요 CD)이다.
한편 김성범 총장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과 제3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도깨비가 그림책 읽는 법’ 등 그림책과 동화책 25권을 펴냈다.
김 총장은 “4월의 첫 날 도깨비마을에서 썩도 캐고 썩 튀김도 만들어보는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산책도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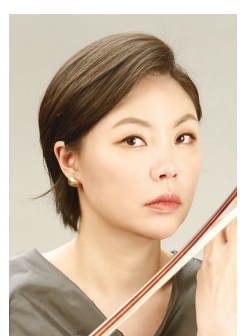


총장 김성범

봄을 느끼는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의 061-363-295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 김민지, 여수에코국제음악제 예술감독 선임

첼리스트 김민지(사진)가 여수에코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에 선임됐다고 범민문화재단과 한국음악협회 여수지부가 23일 밝혔다.
김민지는 초대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소진에 이어 여수에코국제음악제를 이끈다.
허드슨 벨리 현악콩쿠르, HAMS 국제첼로콩쿠르, 어빙클라인 국제현악콩쿠르에서 우승한 김민지는 현재 서울대 음대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의 수석,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여수에코 국제음악제에 관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뛰어난 연주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8회를 맞는 여수에코국제음악제는 6월 15~18일 전남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 열린다.
/연합뉴스